

호남인구, 10년간 32만명 유출... 인구비중 충청보다 낮아

취업 등 경제요인... 인구비중 10.2%로 40년새 반토막 전남 주민, 광주 전입 매년 감소...광주, 구심력 떨어져

소득, 취업 등 경제적 요인으로 지난 10년간 호남인구 32만명이 충청권과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발전연구원 연구진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대소득, 공공재 혜택, 쾌적도, 거주비용, 지방세 부담으로 나눠 이주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한 결과다.

전남발전연구원이 8일 분석한 호남권 내 시·도별 인구이동 추이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호남권 전입자는 총 879만명이며, 전출자는 911만명으로 32만명이 타 시·도로 순유출됐다. 호남권 인구는 지난 1970년 우리나라 인구의 20.4%를 차지했으나 2012년 10.2%로, 반토막이 난 상태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2년 49.4%를, 충청권 10.4%, 영남권 25.9%를 각각 차지했다.

또 광주로 전입하는 전남 주민 수가 매년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 1700여 명이 광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요인 탓에 전남에서 광주로 전입한 인구는 지난 2003년 7682명에서 2010년 6084명, 2011년 3894명, 2012년 2146명, 지난해 1762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광주의 구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지난 1960년대 이래 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어 호남권 자체적인 정책만으로는 인구 유인에 한계가 있으며, 수도권 민간기업 이전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지역개발 교부세를 신설해 집중 지원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인구형용 유지 정책이 필요성을 역설했다.

호남권 인구 유입 대책으로는 호남권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17만명의 청장년층을 타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방안, 수도권 거주 출향민 베이비붐 세대 유인 2단계 정책 수립, 읍면별 미

니 복합타운 건설 추진, 호남 지역 이미지지도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박재형 연구원은 "인구 유인을 위한 호남권 미래발전기획단 설치 및 '2050호남미래비전계획' 공동 수립 등의 과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호남권 인구 감소의 문제는 호남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이니만큼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한글, 바르게 사용합시다”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시민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의 역사와 가치를 일깨우는 전시와 체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호남 애향인사들 한자리에

향우 100여명 '광주 초정회' 참가

전국 곳곳에서 활동중인 광주·전남 출신 애향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호남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항순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중앙회 총재와 박완철 재경광주향우회장, 강장식 재부산호남향우회장, 공형욱 경기도호남향우회연합회장 등 호남향우 100여명은 8일 오후 광주올림픽대인인호텔에서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회장 방철호) 주관으로 열린 '애향인사 초정회' 환영 행사에 참가했다.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 호남 애향인들은 초정회에서 화합의 시간을 갖고 호남 출신에 대한 인사·지역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고향을 떠나 전국 곳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이뤄낸 애향 인사들의 활약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앞으로도 호남발전에 관심과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날 호남발전에 노력해 온 임항순 중앙회 총재에게는 감사패를, 공형욱 회장과 조성욱 인천시호남향우회총연합회 회장, 박장명 전국호남향우회 중앙회 공동회장, 박대섭 재경광주·전남 향우회장, 강장식 회장 등 5명에게는 표창패를 전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노벨화학상’ 美 에릭 베칙 등 3명

초고해상도 현미경 개발

올해 노벨화학상은 광학현미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고해상도 현광 현미경 기술을 개발한 미국 과학자 2명과 독일 과학자 1명에게 수여된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8일 화학상 수상자로 영광분자를 이용해 광학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었던 나노미터(1nm = 10억분의 1m)의 세계까지 관찰할 수 있게 한 미국 하워드휴즈 의학연구소 에릭 베칙 박사와 스탠퍼드대 윌리엄 E. 모너 교수, 독일 막스플랑크 생물물리화학연구소 슈테판 W. 헬 박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획기적인 업적이 광학현미경을 나노 차원으로 이끌었다며



에릭 베칙 윌리엄 E. 모너 슈테판 W. 헬 현재 '나노스코피'(nanoscopy)로 알려진 이 기술을 통해 과학자들은 살아있는 생물 내 개별 세포의 움직임까지 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각 분야의 수상자들에게는 800만 크로네(약 110만 달러)의 상금이 수상 업적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눠 수여된다. /연합뉴스

‘유아숲체험원’ 250곳으로 확대

2017년까지... 등록기준 완화

산림에서 안전하게 숲 체험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유아의 안전한 정서함양 등을 위해 내년에 31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모두 33곳(국가 8, 지자체 25곳)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유아숲체험원은 2017년까지 25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유아숲체험원은 2012년 처음으로 전국에 8곳이 조성된 이후 현재는 모두 21곳이 운영되고 있다. 체험이나 놀이위주의 교육과정 변화로 자연 중심의 생태놀이와 관찰학습 등 숲 체험에 참여하는 유아와

급증하면서 추가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숲 체험 참여 유아는 2010년 8만3000명에서 2012년 42만명, 지난해에는 59만 300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맞춰 산림 당국은 최근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등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체험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전국 어디서나 체험원 크기가 1ha 이상만 되면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교육문화과장은 “앞으로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유아숲체험원의 조성도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중보건의 6년간 1500명 줄어

전남 20% 감소... 의료 취약지역 의료 공백

최근 6년간 공중보건의사가 큰 폭으로 줄어 늘어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 8개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공중보건의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 2009년 5287명에서 올해 6월 현재 3803명으로 약 28%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제주도·경기도·경남도가 같은 기간 동안 39.8%(108→65명), 38.8%(523→320명), 35.1%(686→445명) 각각 감소해 심각성이 더했다. 전남도는 799명에서 647명으로

19.0%, 광주시는 21명에서 3명으로 각각 줄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복무를 대체해 놓여온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의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한다.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드는 것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과 여성이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문 의원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1차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지역과 감염성 질환예방 등 공중보건 목적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이 예쁘고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과세 예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8%)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금호지점/중앙지점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클리코엔(N) 골드**

가격할인 행사

2개월+1개월 행사 **총3개월 25만원**
4개월+2개월 행사 **총6개월 45만원**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더 높은 한도 더 낮은 저금리 혜택!

01 부동산 담보대출	02 햇살론대출	03 아파트 전세 보증금대출	04 저당업자, 직영인 전용대출
최저 3.5%~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전세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건전한 대출 절차로 최고 1억원 까지 가능
이마트, 주력, 삼기, 공강, 내대지, 원흥, 전·담, 모뎀	대출한도 : 신규 60% (신용보증) / 기존 50% (신용보증)	대출금리 : 최저 4.0% (신용보증) / 최고 5.0% (신용보증)	대출한도 :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최저 5.0% (신용보증)
상환방법 : 상환액 / 대환액	대출기간 : 운영자금 최고 2년 / 창업자금 최고 5년	구비서류 : 전세계약서, 임대보증금, 주민등록본·호본 각 1통	구비서류 : 전세계약서, 임대보증금, 주민등록본·호본 각 1통
구비서류 : 등기권리증, 임대보증금, 주민등록본·호본 각 1통	대출금리 : 연 8.01% (아파트보증금) / 연 8.95% (신용보증)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도장, 신분증

더 높은 이율 더 많은 비과세 혜택!

1인당 7,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정기예탁금	수시 입출금 통장	정기적금
1년 2.85% 18개월 2.9% 3년 2.9%	최대 2.5%	1년 3.1% 2년 3.2% 3년 3.3%

단, 하루를 맡겨도 앞잔예금 (당첨액 100만원)

MG 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 232-7251
총장지점: 223-7217 / 223-7218

총장지점: 구도성, 총마, 두리은행, 연타국당, 상생명, 광주일고, 유동, 누분동